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41호 【루계 제25284호】 주체105(2016)년 5월 20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뻬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뻬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뻬루근로자총련맹 집행위원 겸 항구로조 총서기인 떼오뽈도 오르띠스 쎈떠단장이 1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평양화학건재공장, 룡북식료공장, 강남요업공장에 모시였다.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조국》이 평양화학건재공장에 정중히 모셔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해방후 이 공장을 찾으시여 생산공정을 기계화하고 여러가지 질좋은 건재품들을 많이 생산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 충정의 마음을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룡북식료공장에 모셔진 모자이크벽화 《백두산에 오르시여》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영원토록 무궁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축복해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이 형상되여있다.

주체49(1960)년 11월 13일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부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강남요업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주석단을 내리시는 길로 공장을 찾으시여 전후복구건설에 필요한 벽돌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구내에 수령님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신것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들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 11일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각하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김정은각하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한 의정을 토의하였다.

김정은각하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에 떨치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시였으며 당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조선에서 자력자강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만리마시대, 창조와 건설의 일대 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현실은 김정은각하의 위대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김정은각하께서 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이며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이다.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계시는 김정은각하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김정은각하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결정하였다.

라오스통신과 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수리아신문 《리슈린》, 캄보쟈의 에프엠 90.5방송,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바싸이》, 민주꽁고통신 그리고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이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 및 련대성협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딸리아지부,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10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이 소식을 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시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단마르크준비위원회가 최근 꼬뻰하븐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다음해 태양절과 광명성절 등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말따준비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말따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지안 삐에레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계기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널리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계속혁명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철야진군속에서 이룩된 눈부신 과학연구성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수많은 중요대상과제들과 첨단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제품개발과제들을 빛나게 결속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뜻깊은 올해에 전례없는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힘찬 전투를 벌려 눈부신 실적을 이룩하고있다.

대학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120여개 대상에 대한 200여건의 연구과제수행에 력량을 집중하여 빠른 시일안에 결속하였으며 수십건의 첨단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제품을 포함한 180여건의 새 기술, 새 제품개발을 위한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국산화된 우리 식의 제품들을 수많이 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책임일군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달려나가 과학연구과제들을 선정한데 기초하여 연구력량편성과 연구조건보장사업을 적극 짜고들어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대학에서는 70일전투기간에만도 백옥같은 충정과 절사판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훌륭한 연구성과들을 이룩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간 자원탐측공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사석언제다짐밀도측정기를 개발도입하고 콩크리트속벽의 구조와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으며 반도체연구소의 연구집단은 백두의 혹한속에서도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면서 발전소의 모든 발전 및 전력계통설비들이 안전하게 가동할수 있게 하는 온도보호소자들을 연구도입하여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고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자동화공학부와 전기공학부를 비롯한 대학의 연구집단은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안고 수백차의 시험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8축동시조종프로그람을 개발함으로써 지하전동차에 영구자석동기전동기를 도입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한편 금속공학부의 연구집단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나가 산소열법용광로정상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인민군대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의 통합생산공정조종체계와 해상지휘체계에 대한 연구도입과제를 맡은 체신학부의 연구집단은 긴장한 철야전투를 벌려 어로작업을 과학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재료공학부의 연구집단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급수뽐프균형관과 맞대관의 굳기와 가공성을 보장할수 있는 2중피복용수강용착봉을 연구제작하여 급수뽐프의 운영시간을 늘임으로써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기계과학기술대학,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 응용화학공학부, 반도체연구소의 연구집단은 5t급화물자동차를 만드는데 망라되여 파급기를 비롯한 중요부분품설계와 제작지도, 전기, 전자요소들을 국산화하는 등 이 사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를 비롯해서 중요연구과제들을 결속하여 지난 2월과 3월, 4월과 5월에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충천한 기세로 철야진군속도를 더욱 높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였다.

김책수산사업소와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의 통합생산지휘체계를 확립하는데 망라된 대학의 연구집단은 현장에 나가 영상감시 및 화성지령체계, 통합생산체계, 해상지휘체계 등을 개발도입하고 련동시험에서 성공한데 이어 생산에 진입시켰다.

한편 대학의 다른 연구집단은 옥류아동병원에 나가 통합정보화프로그람을 개발완성함으로써 우리 식 조작체계에 의한 새로운 병원정보체계를 표준으로 확립하였다.

광업공학부의 연구집단은 은률광산에 나가 대형박토권양장금광기를 설계하고 제작을 지도하여 대형금광조구를 완성하였으며 재령광산에 대차식자동차권양으로 박토다량처리를 실현할수 있는 화물자동차권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박토처리능력을 종전에 비해 훨씬 높일수 있게 하는 커다란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대학에서는 당의 의도대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수많은 첨단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제품들과 국산화된 새 기술, 새 제품들을 개발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동화공학부에서는 우리 식의 열린형CNC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자, 로동자들이 자체로 기계설비의 특성에 맞게 가공정밀도를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자원탐측공학부의 연구집단은 희토류자원자료열람체계를 확립하였다.

과학연구활동의 폭과 깊이, 량과 질에 있어서 지난 시기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전례없는 성과였다.

종전의 개발방식대로 한다면 문헌조사나 연구에 머물러있을 기간에 이런 폭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된것은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굳센 의지를 천백배로 다져준 충정의 70일전투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대학의 일군들은 긍지높이 말한다.

이들은 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에 더욱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뜻깊은 올해에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는 자력자강의 열매, 국산화의 열매들을 수많이 마련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철야전투를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명훈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장에서 전체 참가자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천만년 드놀지 않을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당대회장에 높이 울려퍼진 이 노래는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진군가로 메아리치고있다.

◇ 높이 날리는 우리의 당기는 승리와 영광의 표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우리의 당기를 형상한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당창건 40돐이 되는 해인 주체74(1985)년에 태여났다.

명곡의 주옥같은 구절에 우리 당의 성스러운 력사가 응축되고 떨쳐온 승리와 영광이 어려있어 작품은 천만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노래에 있듯이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당기를 추켜들고 조선로동당은 장장 수십성상 그 어느 나라 당들도 겪어보지 못한 험로역경을 뚫고왔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떠안고 전쟁의 불구름도 헤치고 원쑤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해나가는 우리 당을 따르는 길에서 천만군민이 찾은 삶과 투쟁의 진리가 명곡에 새겨지였다.

《향도의 이 기발 따르는 길에 이 세상 못 넘을 령이 없어라》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당 제6차대회로부터 제7차대회에 이르는 기간에 더욱 뼈속깊이 새기였다. 력사에 유례없는 사회주의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성스러운 당기를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왔다.

이번에 당 제7차대회장에서 주악된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력에 대한 음악적분출이다.

◇ 당중앙따라 기어이 최후승리의 령마루에 주체의 당기를 휘날리자.

충정의 70일전투를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으며 기다려왔고 가슴벅찬 환희와 격정속에 맞이한 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지금 전당, 전군, 전민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당 제7차대회에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에 총매진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라는 투쟁구호를 제시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며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해나가고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으며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폭발시켜나가고있다.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격로는 열리였다.

모두다 당 제7차대회장에 울려퍼진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를 충정의 맹세로 간직하고 당중앙따라 신심드높이 용기백배 나아가자.

600여km의 강하천 정리, 200여정보의 호안림 조성

전국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하천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큰물피해를 막고 강하천주변을 보기 좋게 잘 꾸려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시작되여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600여km의 강하천을 정리하고 200여정보의 호안림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떨쳐나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수백만m³의 강하천바닥파기와 제방쌓기, 보수, 수십만m³의 장석공사, 호안림조성 등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은 당의 국토관리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힘있는 시위이다.

우선 큰물로부터 도시와 마을, 공장과 기업소, 도로, 농경지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결과 장마철에도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이 일대의 면모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여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치게 된것은 물론 전변된 강하천들마다에 물고기자원이 늘어나게 되였다.

평안북도에서 압록강제방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근 2km구간에 수천m³의 장석공사를 해내였다. 그리하여 큰물로부터 도시를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운산군에서 수천m구간의 구룡강제방공사를 70일전투목표로 제기하고 많은 로력과 굴착기, 유압식삽차, 대형화물자동차들을 집중하여 성과적으로 해내였다. 이 기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십만m³의 강바닥흙을 파내여 제방을 쌓은데 이어 1만수천m³의 장석공사와 제방콩크리트치기를 해내여 백수십정보의 농경지에서 알곡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염주군과 동림군, 철산군, 삭주군, 구장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강하천들을 견고성과 문화성이 보장되게 정리하여 그 면모를 변모시키였다.

평안남도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청천강 룡화4호제방공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큰물피해를 막는 사업은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에서 일관을 벌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300여m³의 돌을 채취하여 천수백m³의 장석공사를 해낸데 이어 콩크리트혼합물타입을 하여 견고성과 문화성을 보장하였다.

개천시에서 수십리구간의 남천강제방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내였다.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만m³의 강바닥흙을 파올려 제방을 쌓고 2만 수천m³의 장석공사를 하여 많은 면적의 농경지를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순천시, 성천군, 회창군, 덕천시에서도 강하천정리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적으로 해내였다.

함경남도에서 강하천정리사업에 힘을 넣었다.

북청군에서 짧은 기간에 수만m³ 북청강바닥을 파낼 목표밑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였다.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로 가슴을 끓이며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질통이 넘쳐나게 흙을 가득 담아지고 달리면서 강바닥을 깊이 파내여 주변의 과수원들이 큰물피해와 랭습피해를 받지 않게 하였다.

금야군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현지에 천막을 전개하고 금야강호안공사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많은 토량을 처리하고 장석공사를 성과적으로 해내였다.

황해남도의 안악군, 신원군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강하천정리에 떨쳐나 성과를 거두었다.

호안림조성을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였다.

경원군에서 두만강기슭을 더욱 풍치수려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호안림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20여정보의 면적에 호안림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온성군에서도 두만강기슭에 수십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수십정보의 호안림을 조성하였다.

무산군, 룡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호안림조성사업이 힘있게 진행되였다.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하천정리사업과 호안림조성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당 제7차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생산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섰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농촌을 물심량면으로 지원

온 나라에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체신성에서 사회주의농촌을 물심량면으로 계속 힘있게 도와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성에서 일군들은 년초부터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릴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많은 소농기구들을 가지고 농사차비로 들끓는 농장에 나가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고무해주었다.

성안의 모든 단위 일군들이 담당작업반에 나가 지난해농사경험과 교훈을 료해한데 기초하여 시기별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장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작전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특히 씨뿌리는 시기와 논밭갈이를 앞두고 영농물자를 제때에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모내기를 앞두고 많은 연유와 뜨락또르부속품, 양수기와 변압기부속품들을 보내주어 그 준비를 원만히 끝낼수 있게 하였다.

성책임일군들은 농장에서 가장 걸린 문제를 도맡아 풀어나갔다. 수십정보의 논에 물을 원만히 대주지 못하여 알곡생산에 지장을 받고있다는것을 안 일군들은 농장의 주인이 되여 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할것을 발기하고 굴착기와 로력을 보내주도록 하였다.

현지에 나간 정무원들과 굴착기운전공들은 올해에 만풍년을 안아오는데 한몫 단단히 할 불같은 마음을 안고 농장원들과 함께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1만여m³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천m구간에 자연흐름식물길을 훌륭히 건설하였다. 결과 많은 양수기를 돌려 물을 대주어야 했던 포전들에 자연흐름식으로 물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비닐박막과 중소농기구, 농기계부속품 등을 농장에 보내주었다.

본사기자 정성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광의 대지에 새기신 숭고한 뜻 길이 빛내여가자

온 나라에 풍년을 불러오는 청산벌의 봄

사회주의대지가 세차게 끓고있다.

농장마다, 포전마다에 나붙은 전투적구호들이 사람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붉은기들이 힘차게 펄럭이고있다.

농업생산의 첫 돌파구인 모내기전투에서부터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나감으로써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천만군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사회주의대지마다에서 끓어넘치고있다.

청산벌의 봄!

사람들모두가 말하듯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봄은 그 이름 자랑스러운 청산리에서부터 시작되는것인가.

지난 5월 12일, 영광의 땅 청산리는 올해 첫 모내기를 하는 기쁨과 경사를 맞이하였다.

충정의 70일전투에서 발휘된 결사관철의 기풍, 자강력제일주의를 다시한번 총폭발시켜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 고장을 찾으시어 모를 내신 4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고 만풍년의 향기가 온 벌에 넘치게 할 일념을 안고있는 청산리사람들이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력사의 고장에 어버이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우시려 우리 장군님께서 새기신 숭고한 령도의 자욱이 오늘 청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한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주체60(1971)년 5월 1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산리를 찾으실줄 그 누가 알았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청산리를 도와주러 왔다고 하시면서 마중나온 농장일군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청산협동농장을 잘 도와주어 올해에 대풍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청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현지지도하시면서 모범을 창조하신 단위이라고, 청산협동농장에서 대풍을 이룩하여야 전국적으로 대풍을 이룩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관리일군들이 어떻게 일하여야 하는가를 세심히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지막한 둔덕을 내리시여 지원나온 예술인들이 일하는 논머리에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취독벌과 벌의 변두리에 솟아있는, 학이 날아와서 춤을 춘다고 하여 그 이름 불리우는 무학산도 기쁨을 안고 춤을 추며 설레이는듯싶었다.

모내기를 하던 예술인들은 포전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뵙게 된것이 꿈만 같아 흙탕물을 튕기며 그이앞으로 달려나왔다.

누구는 모춤을 쥔채 또 누구는 손의 흙물도 씻지 못한채 달려나와 그이께 인사를 올렸다.

앞을 다투며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는 예술인들의 모습은 사랑과 충정으로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된 우리 조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감동적인 화폭이여서 청산벌의 봄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하고있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배우한테서 받아쥐신 모춤을 일별하시고는 다시 논벌을 바라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모를 잘 길렀다고 농장일군을 치하하시였다.

옛날부터 논자랑하지 말고 모자랑하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온 마을이 떨쳐나 애지중지 길러온 벼모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하나같이 충실한 벼모를 보시며 모를 이렇게 기르자니 힘들었겠다고 하시면서 농민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논벌을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포전들에서 분주히 돌아가며 물써레질을 하는 뜨락또르며 논배미들에서 허리를 굽히고 모를 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일군에게 뜨락또르는 많이 보이는데 모내는기계는 왜 보이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모내는기계를 받고 한두번 써봤는데 손에도 설고 고장도 자주 나서 창고에 넣었다고 사실대로 말씀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무슨 고장이 그리 많은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인차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 일군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모내는기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는 농민들이 허리를 펴게 되였다고 기뻐하시며 그 기계를 청산협동농장에 먼저 보내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모내는기계를 쓰지 않고 창고에 넣어두면 안된다고, 모내는기계를 처음 쓰기때문에 잘되지 않을수도 있는데 그 기계를 계속 쓰면서 하나하나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은 큰 충격을 받았다.

언제나 농장벌을 찾으실 때마다 농민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모내기하는 모습을 보시며 가슴아파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뜨겁게 안겨왔다.

모내는기계가 나왔을 때 자신의 자동차전조등을 논벌에 비쳐주시면서 모내는기계운전공더러 한번 더 갔다오라고, 또다시 갔다오라고 하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어버이수령님 아니시였던가.

자책감에 휩싸여있는 농장일군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슨 기계를 다룰줄 아는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일군은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말 못하는 그의 심중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동농장관리위원장들은 모내는기계를 다룰줄 알아야 한다고, 특히 청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농기계를 잘 다룰줄 알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다루지 못한다면 오늘과 같은 기술혁명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장을 관리운영할수 없다는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청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기술을 배워야 하겠다고, 기술이 신비한것은 아니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배우들을 둘러보시다가 어느 한 예술영화에서 주인공역을 한 녀성동무를 가리키시면서 저 동무는 배우지만 뜨락또르운전기술을 배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수 있다고 신심을 주시였다.

어느새 시간은 퍼그나 흘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손에 쥐고계시던 모춤을 내려다보시고는 신발을 벗으시였다.

논판에 들어서시려는것이였다.

농장일군은 그이께로 황급히 다가서며 점심시간이 다되였다고 만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손에 드신 모춤을 들어보이시면서 손에 쥐었던 모춤이야 어떻게 도로 놓겠는가고 하시며 논에 들어서시였다.

그러시고는 허리를 굽히시고 논두렁밑의 빈자리들을 골라가시며 한포기한포기 모를 정성껏 꽂아나가시였다.

정녕 우리 장군님께서 친히 모를 심으시며 논벌을 푸르게 해가시는 숭고한 모습은 우리 조국력사, 사회주의농촌건설력사에 위대한 헌신으로 아로새겨진 불멸의 화폭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을 떠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모내는기계로 모를 내야 한다고, 창고에 넣어둔 모내는기계를 다 내다 손질하여 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모내는기계가 열번 고장나면 열번 고치고 백번 고장나면 백번 고쳐서라도 기계로 모를 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어찌 이날뿐이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청산벌을 자주 찾아주시고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오고 청산리에 풍년이 들어야 온 나라에 만풍년을 안아올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앞장에서 나아가도록 청산리사람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오늘 청산리에 찾아온 봄은 온 나라에 풍요한 가을을 부르고있다.

못 잊을 추억속에 황금나락 설레일 래일을 그려보는 청산리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것은 무엇이런가.

그것은 오직 하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의 농업전선에서 풍장혼을 부름으로써 우리 당에 충정의 보고를 올리겠다는 뜨거운 일념이다.

이것은 청산리사람들의 심정만이 아니다.

당 제7차대회정신을 받들고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들이 떨쳐나섰다. 천만군민의 심장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식량문제, 농업문제해결의 대장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이며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전야야말로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땀을 묻고 열정을 바쳐가야 할 성스러운 곳이 아니랴. 전야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충정과 애국의 영웅서사시를 엮으며 혁명전사의 고결한 의리심을 가장 값높이 발양해갈 성스러운 마당이다. 주체조선의 필승의 기상에 겁을 먹고 우리가 잘살기를 바라지 않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전장이기도 하다.

천만군민이여!

봄철영농전투에서 승전고를 높이 울리며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중요한 결실을 가꾸어가자. 하여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

본사기자 김철혁

잊지 못할 나날이 전하는 이야기들

이른새벽 논두렁길에서

주체60(1971)년 5월 어느날 이른새벽이였다.

논물고를 보며 포전으로 나왔던 농장의 한 일군은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너무도 뜻밖이여서 미처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농장일군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벽부터 수고한다고, 청산벌이 보고싶어 나왔다고 하시면서 모내기준비가 다되였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며칠 있다가 모를 내려한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청산리는 모내기도 제철에 잘하여 전국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함께 농장벌을 돌아보자고 하시며 논두렁길을 앞서 걸으시였다. 비가 온 뒤여서 논두렁길은 몹시 험하였다.

그 일군이 길이 험하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늘 걸으시는 길이 아닌가고, 이런 길을 매일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걸음을 옮기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로정을 따라걸으시며 농장형편을 일일이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농장에 자주 나와보겠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농사일도 잘하고 농촌건설도 잘하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꽃피우시려 농장원들도 깨여나지 않은 이른새벽 험한 논두렁길을 걸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그날의 당부를 못 잊어 오늘도 청산벌은 끝없이 설레인다.

과원에 꽃을 활짝 피우듯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개흐르는 이른새벽 청산벌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때로부터 얼마후 또다시 청산리를 찾으시였다.

화창한 봄날이여서 그 어디에나 사과꽃이 활짝 피여있었다.

포전으로 가시면서 길가의 언덕과 야산들에 하얗게 핀 사과꽃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꽃밭속에 마을이 있는것 같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일군에게 과원에 꽃을 활짝 피우자면 거름을 주고 김도 매고 약도 뿌리면서 잘 가꾸어주어야 하는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속에 붉은 꽃을 피워주자면 해설도 하고 설복도 하고 비판도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늘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투에서 승리하자면 공격목표를 옳게 설정하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것처럼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다그치자면 사상교양의 과녁을 똑바로 정하고 거기에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집중해야 한다고 그 방향과 방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길가에 피여나는 꽃을 보시면서도 청산리사람들을 온 나라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려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와 일군의 가슴에는 격정의 파도가 일렁이였다.

류다른 경기

주체63(1974)년 10월초 어느날 대풍을 맞이한 청산리를 찾으시여 농사를 잘 지었다고 청산리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장일군에게 벼가을을 언제까지 다하겠는가고 물으시였다.

당창건기념일까지 끝내겠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그렇게 해보라고 고무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떠나신 후 일군들은 과연 자기들이 다진 결의를 실천할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이제 당창건기념일까지는 불과 며칠이 남아있었던것이다.

이때 그들의 고충을 헤아려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녁식사도 미루시고 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의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여 오늘 청산리관리위원장이 당창건기념일까지 가을걷이를 하겠다고 어버이수령님께 말씀올렸다는데 농장로력만으로는 힘들것 같다고, 모레부터 하게 되여있는 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 체육경기대회를 래일로 앞당기고 첫 경기의 한 종목으로 《청산리벼가을전투》를 넣자고 하시며 이번에 출전하게 되여있는 모든 선수들과 응원자들이 이 첫 경기에 나가게 하자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청산벌이 생겨 처음으로 되는 청산리벼가을전투라는 류다른 경기가 펼쳐졌고 청산리사람들은 당창건기념일까지 벼가을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정의 보고를 올릴수 있었다.

강원남

청산리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수 필◁

전야에 휘날리는 붉은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포전에 몸소 모를 내신 때로부터 45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 청산벌을 찾은 나의 가슴은 설레이였다.

영광의 농산제3작업반 3분조 포전.

푸르른 하늘에서는 따사로운 봄볕이 쏟아지고 무학산의 산발들이 영광의 대지를 옹위하듯 병풍처럼 서있었다.

모내기전투에로 힘있게 부르는 구호들과 표어들, 선전화들…

그중에서도 인상적인것은 봄바람에 세차게 나붓기는 붉은기였다.

영광의 포전은 그야말로 붉은기천지였다. 논배미들마다에 꽂혀진 붉은기들, 그런가하면 푸른 주단을 펼쳐가는 모내는기계에도 자그마한 삼각붉은기가 날리고있었다.

바람을 안고 세차게 휘날리는 크고작은 붉은기들.

동행한 농장일군은 다른 때는 잔풍하였는데 뜻깊은 이날이니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하였다. 예사롭게 하는 말이였지만 그 말이 나의 생각을 깊게 하였다.

농장포전의 붉은기들이 세차게 나붓기라고 불어오는 청산벌의 봄바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의 붉은 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기며 백승을 떨쳐온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전야에 펼쳐진 붉은기전경을 젖도록 바라보는 나의 심정을 넘겨짚었는지 농산제3작업반의 초급일군인 리근식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 붉은기를 볼 때면 우리 작업반포전에서 모내기를 하시던 잊지 못할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영상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전야에 휘날리는 붉은기의 펄럭임소리는 우리 장군님께서 력사의 나날에 지니시였던 숭고한 뜻을 전하여주고있었다.

돌이켜보면 청산리가 걸어온 자랑찬 로정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전진하여온 참으로 가슴뜨거운 나날이였다.

농민이 로동계급화되고 농업이 공업화, 현대화되고 농촌이 문명화된 그리고 모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주의농촌의 모습을 눈앞에 환히 그려주시면서 3대혁명을 다그치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여 청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나가야 한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가르치심.

농촌지원자들은 단순한 로력지원자가 아니라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당의 혁명전사들이라고 하시며 청산리에 파견된 예술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이끌어주신 이야기, 모내기총화를 크게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떡치고 돼지잡을 생각은 그만두고 모내기총화를 사상교양적의의가 있게 해야 한다고 바로잡아주신 이야기…

진정 오시고 또 오시여 청산리가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앞장에서 꽃피우고 농사도 잘 짓도록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청산리에 언제나 사회주의붉은기가 휘날리게 하여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 떨쳐나선 청산벌에 붉은기가 세차게 휘날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력사의 땅 청산리에 계시며 청산리사람들을 영광과 위훈에로 불러주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고 청산벌의 붉은기는 세차게 나붓긴다.

본사기자 림정호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수놓아온 성스러운 력사

국가발명국의 70년연혁사의 갈피를 더듬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인 긍지를 안고 온 나라 그 어디에서나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의 기상이 힘차게 나래치고있다.

조국과 인민앞에 부끄럼없이 떳떳하게 살기 위해 오늘의 하루하루를 충정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유명무명의 사람들, 그들가운데는 경제적실리와 현실적의의가 큰 발명과 연구성과들로 나라에 보탬을 주고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고있는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도 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사업, 인민생활향상에서 발명과 새 기술창조가 가지는 중요성을 헤아리시고 광범한 대중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참답게 일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절세의 위인들의 품을 떠나 어찌 이들의 값높은 삶에 대하여 말할수 있으랴.

국가발명국의 70년연혁사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령도의 손길아래 국가발명국이 걸어온 성스러운 자욱을 감동깊게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해방된 조국의 첫 기슭에서 벌써 발명, 창의고안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에 떠받들려 국가발명국의 전신인 북조선발명위원회가 세상에 태여난 때로부터 어느덧 70년.

지금도 북조선발명위원회가 태여나던 력사적순간에 마음을 세워보느라면 그때의 격동적인 사실에 대하여 보도한 당시 《평양민보》의 글줄이 되새겨진다.

《오래동안 일본제국주의의 탄압밑에서 천재의 소질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 과학자들은 해방과 더불어 자유로운 환경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코저 작년 12월 발명사업에 관심을 가진 기술자와 과학자들의 발기로 평남발명장려협회를 조직하였는바 이제 인민위원회의 승인으로 북조선발명위원회로 새로운 발족을 하게 되였다.》

북조선발명위원회가 세상에 나옴으로써 발명 및 창의고안을 심의등록하는 정연한 체제가 세워지고 나라의 발명사업전반을 계획적으로, 통일적으로 떠밀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7(1948)년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는것을 규제하신것은 발명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계기로 되였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들을 찾으시여 로동자, 기술자들의 자그마한 창안의 싹을 소중히 여기시며 깊은 관심을 돌리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흥남지구의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이 공장에서 한해동안에 수십건의 창의고안이 나왔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커다란 믿음을 안겨주시고 또 순천화학공장(당시)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는 근로자들을 기술창안도입사업에 광범히 참가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신것을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발명사업을 위해 바치신 령도의 자욱자욱이 국가발명국 연혁사의 갈피를 번지는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전후복구건설을 구상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기에 발명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로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을 백배해주시였다.

전후 나라의 발명, 창의고안사업은 명이나 다름없는 빈터우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의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맞게 이 사업에 낯을 돌리지 않았으며 사대주의에 물젖은자들은 기술신비주의에 사로잡혀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우상화하면서 덮어놓고 반대해나서고있었다.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환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과 인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발명, 창의고안사업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기술행정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고 주체43(1954)년 6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19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리고 회의에 몸소 참석하시여 창의고안심사위원회를 새로 내올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내각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전후 나라사정이 그토록 어려운 형편에서 그 어느때보다 로력이 긴장하고 재정적부담도 크지만 내각직속으로 상설적인 기구를 가진 첫 발명심의기관이 나오게 된것은 주체적인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력사를 개척해나가신 우리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령도와 담력과 배짱이 안아온것이였다.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나라의 발명사업은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나시고 조건과 환경이 불리한 속에서도 로동자, 기술자들을 적극 조직동원하여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국가발명국의 70년연혁사의 갈피에는 나라의 발명사업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이 빛나게 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8(1979)년 발명가, 창의고안명수회의를 몸소 발기하시였다. 회의일정으로부터 참가자들의 숙식조건과 수송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관심하시며 이끌어주신 그이의 뜻에 떠받들려 회의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평가를 잘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수많은 조치를 취해주신 사실, 전국발명가대회를 조직하도록 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도록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신 사실, 발명 및 특허기술의 홍보활동을 벌려나가는 근로자들을 위한 잡지를 발간하도록 하신 사실,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도록 국제무대에도 내세워주신 사실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명사업에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끝이 없었다.

그뿐이 아니다. 발명사업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널리 참가시키며 발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1~2년에 한번씩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를 조직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 있었기에 국가발명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발명 및 특허심의와 보급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과학기술정책을 높이 받들고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발명사업을 심화발전시켜 경제기술적효과성이 높은 수많은 연구성과들을 생산과 건설에 도입하여 은을 내수 있게 하였다.

과학기술을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하여 과학기술중시의 위대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국가발명국은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를 발표하시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10여차례에 걸쳐 국가발명국 사업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과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받들고 국가발명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발명심의사업의 과학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합치고있다. 여러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를 발전시키며 과학기술정보봉사사업을 강화하여 각 분야의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광범히 장악보급하는데서도 성과를 거두고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충정의 70일전투에서도 국가발명국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과학기술적자료들을 마련하여 해당 단위들에 보내주어 70일전투장들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으며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교육기관들에 나가 기술적문제들에 대한 해설강의도 해주고 직접 현실에 도입하는 사업도 도와주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계설비전시장을 찾으시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만든 기계제품들이 하나와 같이 세계적수준이라고 평가하시면서 기계제품들을 훌륭히 제작한 단위들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마련된 창조물들이 련이어 태여나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에서 사람들은 자강력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전진해나가는 조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과학자들이 그리는 설계도면에 조국의 앞날이 그려지고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것, 과학기술발전에서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어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조이다.

과학기술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과학기술발명사업은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고있다. 이것이 국가발명국의 70년연혁사의 갈피를 번지며 우리모두가 심장으로 새겨안는 진리이다.

지난 70년력사가 그러하였던것처럼 국가발명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여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것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현존발전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중심을 두고

전력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

전력공업부문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새로운 공격진지를 차지하고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70일전투기간 계획보다 수억kWh에 달하는 전력을 증산하고 5월 11일에는 화력발전량을 114%로 장성시킨 우리의 미더운 전력생산자들은 지금 현존발전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모를 박고 날마다, 시간마다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기간 전력공업부문에서 타오른 혁신의 불길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한몸이 그대로 불붙는 석탄이 되고 타빈이 되어서라도 당의 권위와 조국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내려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굴함을 모르는 담력과 배짱이 안아온것이다.

당의 호소를 받들고 70일전투에 진입한 전력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은 용암마냥 거세차게 끓어번지였고 각 발전소들은 거대한 도가니들로 화하였다. 사람과 불, 물과의 치열한 백열전이 펼쳐지고 한W한W의 전기에 전력생산자들의 뜨거운 피와 땀이 그대로 슴배였다.

백수십℃가 넘는 보이라화실속에 주저없이 뛰여들며 증산의 동음을 지켜나간 힘겨운 전투, 뜻하지 않은 정황속에서 수십t이나 나가는 화차에 어깨를 들이밀고 석탄을 보장…

말그대로 목숨도 내대야 하는 투쟁의 련속이였고 자기의 힘을 확신하는 의지의 분출이였다.

이런 불굴의 정신력이 그 어느 일터에서나 활화산처럼 분출되어 종전같으면 무망도 기적이라고 하던 보이라대보수기일이 한달로 줄어들었고 호기당 가동일수가 훨씬 늘어나 수억kWh의 전력을 증산할수 있게 된것이였다.

전력생산자들은 전력공업부문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전력증산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해나갔다. 우리 원료, 우리 기술, 우리 힘으로 발전설비의 중요부분품들을 국산화하며 수력발전기 수차식려자기를 비롯하여 자체로 개발한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와 자재로 기어이 국산화를 실현하려는 이들의 투쟁을 여러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의 과학자, 교원, 연구사들이 힘껏 도와주었다. 급수뽐프날개, 뽈련속주조기생산공정의 국산화, 미소중유버나기술, 기밀고리특성개선기술도입, 급수뽐프진동진단기제작…

70일전투기간에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각지의 전력생산자들의 증산투쟁에 박차를 더해주고있다.

전력공업성의 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서 척후대, 선행관이 되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떨쳐나섰다. 현존발전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중심을 두고 그 실현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있다.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찾아나가고있다.

당의 의도대로 국가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를 하루빨리 구성하는것과 동시에 송전계통을 방사형으로 바꾸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들이 취해지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대규모생산공정들에 현대적인 무효전력보상장치들과 최신주파수변환장치들을 널리 받아들여 여기서만도 년간 수억kWh의 전력을 절약할수 있는 통이 큰 작전이 벌어지고있다.

송배전전압단계를 보다 높이고 유연교류송전계통 등 여러가지 앞선 송전방식을 널리 도입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기 위해 해당 과학연구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창조적사색과 지혜를 합쳐나가고있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네르기를 리용하기 위한 방도도 적극 모색하여 10여만kW의 전력을 생산하려고 하고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한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승리의 직선주로따라 만리마속도창조투쟁의 앞장에서 달려나갈 애국충정의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윤금찬

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목표

화학공업성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화학공업성 일군들의 열의는 비상히 앙양되여있다.

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를 하루빨리 높은 수준에로!

그 누구나 승산은 확고하고 전망은 락관적이라는 신심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물질적재부를 마련하는 농업과 경공업은 물론 인민경제 그 어느 부문이나 화학공업을 떠나 그 발전을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일찌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화학공업발전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화학공업이 자립적인 토대에 튼튼히 의거하고 부문구조를 원만히 갖추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그 토대를 도약대로 하여 흥남과 남흥의 비료생산자들은 우리 당이 호소한 총정의 7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 적들의 악랄한 경제제재책동에 파렴구를 내며 주체비료생산목표를 점령하였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확립한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에서 주체화학제품생산을 늘여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장하였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에 새로운 첨가제에 의한 버질팔프생산공정이 확립되여 나라의 종이공업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전망이 열린것도 귀중한 성과이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 기계제염공정이 일떠서고 원산화학공장을 비롯한 화학공업부문의 여러 공장들에서도 중요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참으로 자립의 창조물들로 가슴벅찬 창조의 70일이였다.

우리의 화학제품의 리용령역이 넓어지고 그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현실을 대하면서 화학공업성 일군들은 당과 조국앞에 화학공업발전을 책임진 본분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있다.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하나하나의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해나가면서 성일군들이 뼈에 새긴 승리의 진리는 자력자강이다.

하기에 지금 성일군들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의 전망은 아주 락관적이다.

세계적으로도 메타놀을 출발원료로 하여 기초유기화학품을 생산하고 나아가서 합성연유,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탄소하나화학공업의 발전력사는 길지 않다. 성일군들은 남들이 걸어온 단계를 뛰어넘어 우리 식의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짧은 기간에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울 배심에 넘쳐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미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석탄가스화에 의거한 메타놀생산공정을 확립하여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쌓았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는 여러가지 기초화학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석유화학계통이 꾸려져있다. 여기에 앞으로 능력이 큰 메타놀생산기지만 꾸려놓으면 나라의 화학공업기지들에서 비날론, 아닐론, 테트론, PP를 비롯한 각종 화학섬유와 에바수지, 염화비닐란성체 등 여러가지 기초화학제품생산을 힘있게 내밀수 있다.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공업의 완비를 위한 기술준비도 결속되고 흥남과 남흥에서 10여가지의 촉매를 국산화하는 연구사업도 끝내였다.

전략목표수행기간 이미 마련된 주체적화학공업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여 기초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려는것이 화학공업성 일군들이 내세운 뚜렷한 발전전략이다.

본사기자 리철옥

세계적인 패권을 우리가 쥐자

대흥청년영웅광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마그네사이트와 흑연, 규석과 희토류광물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기술로 세계적인 패권을 쥘수 있는 경제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정신을 심장마다에 조아박은 대흥청년영웅광산 로동계급이 새로운 공격진지를 차지하고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기간에 마그네사이트와 마그네사제품생산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자!

배심은 든든하고 신심 또한 확고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름진 광석발을 타고앉은 자부에서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두지휘하신 70일전투의 격전에서 이곳 로동계급은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줄 아는 총정의 대오로 장성강화되였고 당에서 바라는 자력자강의 강자들로 억세게 성장하였다.

우리 당의 권위를 영웅적실천으로 결사보위한 대흥로동계급의 70일전투.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창조된 위훈의 날들이 뚜렷이 새겨진 70일전투기록장의 갈피마다에는 대흥로동계급의 뜨거운 심장이 살아높뛰는 많은 투쟁이야기가 기록되여있다.

70일전투가 시작된 첫날에 무학분광산 전진경 갱장 심혁철동무가 당조직을 찾아왔다.

《우리 막장에서 희생된 심금철동무의 몫을 이번 70일전투기간에 제가 맡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갱장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희생된 전우가 일하던 교대에서 착암기를 잡고 광석을 캐냈다.

그만이 아니였다. 마그네샤크링카분공장 경소직장 소성공 박명일동무도 지난해 함께 일하다가 위험한 순간 자기를 구원하고 희생된 박명혁동무의 몫까지 맡아 두 교대작업을 매일과 같이 빠짐없이 진행하였다.

대흥로동계급은 70일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대중적영웅주의,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증산실적으로 당중앙결사옹위의 성돌을 쌓아나갔다.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쌓고 떨쳐일어나 승리의 5월을 빛내인 광산로동계급의 심장은 지금 당 제7차대회정신을 받들고 더욱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지난 시기 내화물공업의 주체성을 철저히 보장하는데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어놓아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만족을 드렸던 이곳 로동계급은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공격전에서 자기 힘을 더욱 믿고 모든 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적인 관점과 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가고있다.

16일현재 준비굴진실적은 매일 거의 2배로, 광석생산은 1.7배로 뛰여올랐고 우리의 풍부한 원료와 연료에 의한 마그네사제품생산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다. 광산일군들의 작전밑에 다량채굴을 위한 새로운 채굴공법연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 소식은 마그네사이트광석채굴에서 세계적인 패권은 문제없다는 신심을 더해주고있다.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대흥로동계급은 이렇게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첫걸음부터 보폭을 크게 내짚었다.

본사기자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총매진

금속공업부문에서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폭풍처 내달리는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기세는 활화산의 폭발마냥 강렬하다. 열기를 내뿜는 산소열법용광로와 전기로앞에 선 용해공들과 자립의 강철기둥을 밀어내는 압연공들, 철광석증산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려가는 광부들은 총정의 70일전투천아진군의 나날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휘황한 웅대마냥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신 금속공업부문의 진격로를 따라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자!

불의 대하가 끊임없이 흐르는 철의 기지들과 증산의 동음 높이 울리는 철광석생산기지 그 어느 일터에서나 이런 불같은 웨침이 울려나오고있다.

최후승리를 향한 진군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으며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생산자대중의 드높은 각오를 매일, 매 시각 새롭게 받아안으며 금속공업성 일군들은 지금 자립의 우뢰기둥을 더욱 억척같이 버려갈 현실적이며 전공적인 전투계획을 세워가고있다.

제철, 제강, 압연공정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며 철광산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문제, 철강재생산에 필요한 전극, 합금철, 내화물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작전들이며 합금강과 규격강재의 품종을 늘이기 위한 작전 등 과학적인 타산밑에 세운 하나하나의 통원적인 전투목표들에서는 당이 벽을 울리면 우뢰로 화답하는 완강한 공격정신이 그대로 엿보인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전망적인 계획밑에 년도별로 세분화된 성적인 작전에 따라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떨치기 위한 투쟁에 용약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휘황한 설계도따라 김철과 황철, 강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재령, 은률을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신들메를 더 바싹 조여매고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진군 또 진군의 발구름속에 며칠동안에만도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김철로동계급은 주체철생산에 필수적인 무연알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데 이어 주체화, 현대화성과를 확대할수 있는 큼직큼직한 일판을 펼치고있다.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점령한 황철로동계급은 년말까지 근 4배에 달하는 철강재생산목표를 세우고 련속적인 공격전을 들이대여 려명거리건설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철강재를 높이높이 쌓아가고있다. 강선로동계급은 철강재생산의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여 지난 시기보다 합금강과 규격강재의 품종을 현저히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흥남전극공장에서 황철의 초고전력전기로전극생산에 성공하였다는 흐뭇한 소식이 전해질 때 부령합금철공장에서는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합금철개발과 현대적인 합금철로전실속도를 2배로 높이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은률, 재령광산의 광부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생산토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투쟁에 용약 떨쳐나 일자리를 크게 내고있다.

전후 강철증산성과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혁명의 전세대들처럼 최후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리자, 바로 이것이 련속적인 공격전에 진입한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같은 투쟁열의이다.

본사기자 전성삼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내줄 철강재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국가발명국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국가발명국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19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관계부문, 국가발명국 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국가발명국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태복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창립 일흔돐을 맞는 국가발명국의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5(1946)년 5월 20일 국가발명국을 창립해주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정력적인 령도로 발명과 창의고안사업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명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수많은 교시와 지시를 주시여 온 나라에 발명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주시였으며 거듭되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면서 국가발명국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당중앙은 국가발명국이 나라의 발명 및 특허사업과 과학기술지적재품류통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었다.

국가발명국은 창립후 지난 70년동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지적소유권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박사원과 정연한 발명 및 특허심의등록체계, 대규모의 국내외발명 및 특허자료기지를 갖춘 나라의 발명행정기관으로 강화발전되여 과학기술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가발명국에서는 10여차의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와 170여차의 전국발명 및 창의고안현상모집을 조직진행하여 과학기술지적재품류통을 활성화하고 온 나라에 발명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 공헌하였다.

국가발명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봉사기와 정보기술수단들로 발명 및 특허자료기지를 구축하고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새 기술을 널리 보급하였으며 여러가지 도서들을 편찬하고 가치있는 발명성과들을 현실에 도입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실현에 적극 기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국가발명국의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애국사업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국가발명국 국장 김두만의 보고에 이어 처장들인 류철호, 강진, 한태주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창립 70돐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선군혁명동지로 튼튼히 준비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나라의 발명 및 특허사업과 과학기술지적재품류통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다그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년강국의 위용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수백만 청년전위들이 위대한 김정은시대 청년대군의 혁명적기개와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온것처럼 오늘의 력사적진군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70일전투기간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모두를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열렬한 혁명가들로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자강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지난 3월 어느 한 기관건물에서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강계의학대학과 강계공업대학 청년학생들속에서 불속에 뛰여들어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와 영상작품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높이 발휘되였다.

문화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청년동맹원들을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된바람을 일으켰다. 하여 봉화예술극장 청년동맹원들이 인민보안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주변관리사업으로부터 하루일과를 시작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성안의 700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당의 유일사상교양거점들을 정중히 꾸리고 관리하는 사업을 생활화, 습성화하고있다.

황해북도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위대성해설선전을 실효성있게 진행하고있는 룡산혁명사적관강사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였으며 울원지총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청년동맹원들모두가 전세대들이 지녔던 불굴의 혁명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학생청년들을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을 70일전투의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미제의 잔인성과 야수성을 보여주는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신천박물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대한 참관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70일전투기간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백두전역을 비롯한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청년전위들은 새로운 영웅청년신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남포시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은 70일전투기간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10여개의 공장들과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달려나가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청년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평안남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전력, 석탄부문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과 청년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하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안의 청년들이 전력생산투쟁의 앞장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갔으며 도적으로 40여개 탄광부문 청년돌격대들에서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 물길굴공사를 맡은 청년돌격대원들은 매일 굴진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하면서 최고굴진실적을 돌파하여 방대한 물길굴을 관통시킴으로써 70일전투결의목표를 빛나게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태양절까지 20여명의 청년들이 년간인민경제계획을, 270여명의 청년들이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200여점의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오래동안 운행하지 못하고있던 내연기관차를 원상복구하여 《청년》호로 명명하였으며 평안남도수산관리국 문덕수산사업소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의 처녀어로공들은 어로전투를 힘있게 벌려 태양절까지 160여t의 물고기를 잡아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성, 중앙기관들과 평양시안의 수많은 청년들이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장과 려명거리건설장으로 달려나가 야간지원청년돌격대활동을 벌린것을 비롯하여 전국의 청년학생들속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랐다.

민족의 양양한 전도와 사회의 혁명적분위기는 건전하고 고상한 청년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기풍에 비끼게 된다.

전투기간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공정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린 결과 수많은 청년들속에서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고상한 미풍이 수없이 발휘되였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득장청년탄광 김혁청년돌격대 대원 최복남은 지난 4월 갱막장에서 긴장한 전투를 벌리던중 갱이 붕락되는 위급한 순간 2명의 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되였으며 황북종합대학 강건의학대학과 황해북도인민병원안의 수십명의 청년들은 지난 4월 심한 화상을 입은 농장원을 위해 자기들의 피부를 이식해주는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였다. 평양안경상점 로동자 김정희는 《처녀어머니》 장정화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8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처녀의 몸으로 10명의 아이들을 맡아키우고있으며 봉천군 행정협동농장 농장원 신옥심은 군사임무수행중에 하반신이 마비된 특류영예군인과 지난 3월 만사람의 축복속에 뜻깊은 결혼식을 하였다. 이밖에도 총정의 70일전투기간 수많은 청년들속에서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며 중요대상건설장들을 성의껏 지원하는 미풍들이 발휘되였다.

이렇듯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높이 발휘된 각급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창조기풍, 고상한 미풍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 존엄높은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하려는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일대 과시로 된다.

윤명철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모내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최적기보장을 목표로 총돌격

각 지 농 촌 들 에 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사회주의협동법의 모내기전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있다.

모내기최적기보장을 목표로 한 일군들의 전례없는 과학적인 작전과 지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전야마다 시간이 다르게 푸른 주단이 흐뭇하게 펼쳐지고 있다.

농업성 일군들이 당 제7차대회결정을 받들고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내는 사업을 중시하고 환강하게 내밀고있다. 각 도를 맡고 내려간 성일군들이 현실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기술지도로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돌격로를 열어나가고 있다.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모내기적기선정문제를 중시하고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드팀없이 내밀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농촌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모내기를 적기에 해야 모살이가 빨라지고 벼의 영양생장기간과 생식생장기간이 소출구성요소형성에 유리한 기상환경에 놓이게 되며 영양물질흡수리용률과 병해충접힘성이 높아져 정보당 소출을 높일수 있다는것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설해주고있다. 그리하여 농촌들에서는 이 사업에 힘을 넣고 정확히 세운 일정계획에 맞게 실현해나가고 있다.

시, 군들에서는 모내기적기선정을 위한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힘을 넣었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할데 대한 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를 자각하고 분발해나선 일군들은 포전들을 밟아가면서 적기선정실태를 료해하고 대책을 세웠다. 특히 지난 시기처럼 모가 모판에서 자란 기일이 아니라 품종별, 모종류별기준일수에 도달하게 되는 날자와 해당 지역의 기상 및 토양조건을 놓고 모내기적기를 선정하도록 기술지도를 따라세웠다. 최적기보장에 정보당 0.5~1t의 알곡증수예비가 있다는것을 명심한 농장원들은 포전별특성에 맞게 정확히 세워진 일정계획대로 모내기전투장마다에서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정안남도에서도 올해 도적으로 이른른모, 큰모에 의한 소식재배방법을 대담하게 80%이상 받아들인데 맞게 모내기적기를 옳바로 정하는 문제에 특별히 모를 박고 모내기작전과 지휘를 해나가고있다.

도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해 기술적지도를 현장에 바싹 접근시키고있다. 그들은 시, 군, 협동농장들에서 모적기일나이에 도달하게 될 시기를 판정할 때 지난 시기와 달리 정당 씨후림량과 함께 척당 모선대수도 중시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따라 영양면적차이로 하여 모적기일나이시기도 달라지게 된다는 원리를 깊이 인식한 숙천군, 덕천시, 성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모육음작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모상태에 따라 일정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명령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그리고 염피해지와 랭습지들에서 모살이기간이 길어지고 헛아지비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6월 상, 중순에 모내기를 해야 하는 조건에 맞게 모판관리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평안북도의 농촌들에서 모내는기계리용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투쟁이 전투적으로 벌이지고있다.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발휘된 절사관철의 기풍, 자강력제일주의를 용폭발시켜 모내기전투에서도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타는 열정과 기상은 모든 협동벌들에 세차게 나래치고 있다.

도의 일군들은 과숙된 모를 내게 되면 정보당 소출감소량이 1~2t이상에 달하게 된다는것을 잘 알고 모내기적기보장을 위한 사업에서 기계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도에서는 모내는기계들을 자체로 개작리용함으로써 모내기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한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정주시 일해협동농장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올해 모내기에서 기계화비중을 지난 시기에 비해 10%이상 높일수 있게 하였다. 포전마다 전개된 이동수리조들로 하여 모내는기계들의 동음은 더욱 힘있게 울려퍼지고있다.

민단의 준비를 갖추고 전투에 진입한 함경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매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모내기적기보장에서 써레치기를 앞세우는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있는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할 일념안고 포전모서리부분의 수평까지 정확히 보장하면서 써레치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그리고 모내기를 최적기에 다그칠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마련한 기세로 모내기전투에 력량을 집중하고 있다.

황해북도와 함경남도, 강원도에서도 모내기적기보장문제를 그 어느때보다 중시하며 하루도 드팀없이 완강하게 실천해나감으로써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고 있다.

백절불굴의 공적정신을 지니고 모내기를 최적기에 다그치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로 하여 사회주의주타격전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혁신의 새 소식, 승리의 봄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본사기자 장 은 영

동 림 군 에 서

모살이기간을 줄이는데 힘을 집중

동림군에서 모살이가 잘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풋깊은 올해의 모내기전투를 작전하고 시작을 잘 떼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지난 시기 튼튼한 모를 키워 적기에 질적으로 낸 농장, 작업반들에서 수확고차이가 생긴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과정에 모관흙이 붙은 상태에서 모를 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모살이기간차이로 하여 소출이 적지 않게 감소되였다는 한데 이어 소로 써레치기를 진행하여 구석진 곳에까지 수평고루기를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고있다.

모든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모살이기간을 하루만 알당겨도 정보당 3%이상의 알곡을 더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쌀로써 당 제7차대회정신을 보위할 드높은 열정안고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에 의하여 올해농사에서 장혼을 안아올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본사기자 주 창 일

당 제7차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써레치기의 질보장에 큰 힘을

어 랑 군 에 서

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서 긍지높은 영광의 대회로 경축한 기쁨안고 이랑군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모내기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침땅변적이 제한되여 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써레치기의 질이자 모내기성패라는 관점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한 투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회문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토양조건과 남자별모내기계획에 따라 모내기에 써레치기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고있다. 농장일군들은 써레치기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

써레치기에서 수평을 잘 보장하지 못하여 정당 1로기씩만 비여도 정보당 수십kg의 소출이 떨어진다는것을 명심한 뜨락또르운전수들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다.

옵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포전별토양특성을 따져가며 물논써레치기전에 물대는 날자를 합리적으로 정하고있다. 이들은 모래기가 많은 논에는 써레치기 하루전에, 질흙기가 많은 논에는 4~7일전에 물을 대도록 하고있다. 결과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랑비되는 현상이 없어졌으며 굳은 흙덩어리들이 물을 충분히 흡수하여 써레치기의 속도와 질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다.

써레치기전에 물대는 깊이를 알맞춤하게 정해야 작업속도를 높이면서도 수평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좋다는것을 명심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여기에도 힘을 넣고있다.

룡정협동농장에서는 토양의 습도가 60-65%정도로 보장된 상태에서 마른논써레치기를 내밀고있다. 이렇게 하면 흙덩어리가 잘 부스러져 모내기의 질을 보장하는데 좋았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포전별, 필지별토양특성과 비내린 정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써레치기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워놓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속력을 리용하여 다시 써레치기를 진행하여 구석진 곳까지 수평을 보장하고있다.

수남, 룡천, 이엄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70일전투로 비상히 앙양된 기세를 더 높이 고조시키며 써레치기를 비롯한 모내기전투의 모든 공정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최대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반드시 대승전고를 울려 당 제7차대회 정신을 보위하려는 군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앙양된 혁명열, 투쟁열에 의하여 집이 철저히 당보된 써레치기가 모내기에 확고히 앞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황 철 민

양수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제때에 보내주고있다.
—서해갑문—신천—강령, 용진물길1단양수장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양수기가동시간이자 모내기실적

안 악 군 관 개 관 리 소 에 서

안악군관개관리소에서 개조한 대형양수기들이 관개용수보장에 큰 힘을 나타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큼직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담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관개관리소의 일군들은 전력사정이 긴장한 조건에 맞게 대형양수기들의 가동시간을 최대한 늘일수 있도록 4개소의 양수장의 설비들을 개조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대형양수기를 한번 가동시키기 위해 진공설비로 흡입관에서부터 양수기까지 30분동안 물을 끌어올려 진공상태를 보장해야 했던 종전의 낡은 틀을 깨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철관제작과 조립을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낮에 밤을 이어 진행되여 지난 시기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연 600여m의 철관을 새것으로 교체하였다.

결과 관개관리소에서는 많은 전기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대형양수기가동시간을 늘여 하루 동안에 종전보다 20%의 물을 더 퍼올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관개관리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 제7차대회과업을 받들고 앙양된 투쟁기세를 계속 힘차게 고조시켜 대형양수기들을 만부하로 돌려 모든 포전들에 물을 보내주고 있다.

또한 농장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보막이를 하여 포전들에서 새여나온 물을 모조리 잡아 다시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내밀고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제작한 수십대의 추류롬프들을 농장들에 보내주어 귀중한 물을 허실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군관개관리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지금 안악군의 모든 포전마다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고있다.

전 명 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9일 메루의 깔라오일보사 사장 겸 책임주필 아브라함 라미레스 리두마를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론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그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고향집을 돌아보면서 김일성주석의 소박한 가정과 고귀한 생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이시다.

대표단은 이밖에 주체사상탑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과학기술전당 등을 참관하였다.

함흥과학자살림집 1단계준공식 진행

지 식 인 들 새 집 에 입 사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인재중시사상에 떠받들려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의 주변에 수백세대의 과학자살림집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하였다.

새로 건설된 함흥과학자살림집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과학자, 교육자들을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사랑의 보금자리이다.

19일에 진행된 함흥과학자살림집 1단계준공식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지식인들,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성일 함경남도당위원회 위원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함흥시에 과학자살림집을 건설할데 대한 은정을 떠올려주시고 흥배치안과 살림집형성안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침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뜻을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자강력제일주의정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착공의 첫날부터 공사를 드세게 밀고나갔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설계가들이 새 살림집에서 생활하게 될 과학자, 교육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원칙에서 설계를 책임적으로 하였으며 건설자들이 합리적인 시공방법과 공법들을 적극 도입하면서 살림집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켜 과학자살림집 1단계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련관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세멘트와 철강재, 목재, 건설기계 등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과학자, 교육자들이 당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말고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기수, 돌격대가 되며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과학자, 교육자들과 주민들은 당의 은정이 깃든 살림집과 주변환경을 알뜰히 꾸리며 생활문화확립에서 본보기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이어 흥겨운 축관이 펼쳐진 속에 함흥시의 과학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희한하게 꾸려진 살림집들에 들어섰다.

그들은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베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메오뽈도 오르띠스 헤띠 집행위원 겸 항구로조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베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케냐아에 가는 국토환경보호성대표단 출발

김경준국토환경보호상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환경보호성대표단이 케냐아의 나이로비에서 진행되는 유엔환경계획총회 제2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1부상이 전송하였다.

스위스에 가는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출발

강하국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총회 제69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형훈 보건성 부상과 나지라 아르리코바 주조 세계보건기구 림시대리대표가 전송하였다.

수산업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조로공동위원회 제29차회의 의정서 조인

수산업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조로공동위원회 제29차회의 의정서가 19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수산성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로씨야련방 수산총국대표단 성원들, 주조로씨야련방대사관 참사가 참가하였다.

웰남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

호지명주석의 생일 126돐에 즈음한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이 19일 조선웰남친선 경상유치원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꽘 비엣 홍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철룡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선웰남친선협회 성원들, 유치원 교양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어린이들속에 계시며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신 미술작품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호지명방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웰남의 호지명주석과 상봉하시는 사진문헌을 우러러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이어 그들은 어머니당의 승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길이 전하는 행복의 요람에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강성조선의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운동실, 률동실 등을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어린이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떠나갔다

부영옥 총련 오사까부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19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와 김진곡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극한 인간애를 지니고

먹성탄광마을에 사경에 처했던 한 탄부의 딸을 정성껏 치료하여 대지를 활보하게 한 가슴뜨거운 소식이 전해져 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에 떨쳐나선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탄광병원으로 후송되여온 11살 난 소녀의 상태는 매우 위급하였다.

의사협의회에서는 기존치료방법으로는 환자를 소생시키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때 먹성탄광병원 의사 김정철동무가 환자치료를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그는 기어이 탄부의 딸을 소생시킬 결심을 안고 치료전투에 들어갔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의사, 간호원들을 감동시켰다. 병원의 료집단이 떨쳐나섰다.

김정철동무는 옥류아동병원과 련계를 가지고 먼거리화상진단으로 치료전술을 빈틈없이 세운 다음 고려치료방법을 활용하며 치료전투를 벌려나갔다.

이와 함께 귀한 보약재를 얻기 위해 수십리 밤길을 걷기도 하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자 집에서 성의껏 마련한 영양식품으로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의사 김정철동무와 이곳 병원의 의료집단의 아낌없는 지성에 떠받들려 소녀는 무달만만에 다시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되였다.

회복하는 날 소녀와 그의 부모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우러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 탄광마을사람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였다.

로농통신원 연 천 행

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혁명인재육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교육강국, 인재강국의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각지 대학들에서

주체교육발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은 지금 온 나라 교육자들 특히 각지 대학일군들과 교육자들의 심장에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

새겨볼수록 부강조국의 찬란한 앞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념원이 어려오고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빛발치고있다.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인 당 제7차대회를 뗏뗏이 맞이하기 위한 충정의 70일전투기간 비약의 자세찬 불길과 함께 주체교육과학의 전당들에서는 그 얼마나 다발적이며 련발적인 성과들이 마련되였던가.

시작부터 보폭을 크게 내짚고 기세차게 달려온 대고조전투였다.

각지 대학들에서 교사, 식당, 기숙사건설과 보수 등이 좋기차게 벌어지고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 첨단과학연구사업에서 눈부신 기적이 창조되여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에 위훈으로 새겨졌다.

올해에 창립 70돐을 맞이하는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지난 시기의 몇배를 뛰여넘는 실적들이 기록되였다. 70일전투가 벌어져 한달 남짓한 사이에만도 수백개 과목의 1만 7 800여건에 달하는 교수안들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가 실현되고 수만건의 강의안이 다매체화된 전자강의안으로 작성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농업대학, 계응상농업대학에서도 이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종합대학적으로 모두 2천여개 과목에 8만여건의 강의안이 다매체화된 전자강의안으로 완성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교육내용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대학, 학부들에서 연 수백차에 달하는 교수합평회와 수십차에 달하는 교육방법심의를 통하여 새 교수방법들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벌어졌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수십개 대학들에서도 70일전투기간 실리있고 우월한 교육방법들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1천 수백건의 새 교수방법들을 창조하였으며 평양건축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학술부문이 같은 대학들에서 교육의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줄기차게 벌어져 인재양성사업에서 또다시 큰걸음을 내짚었다.

현대적인 실험실습실들을 새로 꾸리고 실험설비와 기구들을 새로 제작하거나 갱신하는 사업 등을 통하여 각 대학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한층 강화되였으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전변이 일어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등 여러 대학들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자료기지화하고 프로그람, 외국어, 수학을 비롯한 수십개 학과목에 대한 학과경연을 콤퓨터망을 통하여 수시로 조직진행하면서 새로운 시험방법도 적극 도입한 결과 지난해에 비하여 학생들의 평균성적이 훨씬 높아졌다. 이 성과들은 교육자들의 신심과 열의를 더욱 높여주었다.

불타는 충정의 열의가 안아온 기적과 위훈이였다.

이 기세를 늦춤이 없이 당 제7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폭풍쳐달려갈 대학일군들과 교육자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이들의 앙양된 기세에 발을 맞추어 각지 대학들에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높이 큰 목표들을 세우고있다.

우리 당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문명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진로, 주체교육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것은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고 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한 우리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맹세이고 의지이다.

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 문명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태양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며 세계를 압도하는 눈부신 교육성과를 이룩해나갈 혁명적열의가 온 나라 대학교정들에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유능한 인재로 준비해간다.
—평성석탄공업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실험실습설비의 현대화에 큰 힘을 넣어

평양기계종합대학에서

얼마전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기계제품들을 보아주시고 정말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 자랑찬 자력자강의 창조물들가운데는 평양기계종합대학 교육자들의 불타는 충정과 피타는 사색이 깃든 제품들도 적지 않았다.

하다면 세계적인 우리 의것을 창조해갈 야심만만한 배짱에 넘쳐있는 이곳 교원, 학생들의 뛰여난 실력은 과연 어떻게 갖추어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대학의 교육사업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을 하나로 밀착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이 사업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일관하게 밀고나가고있는것이다.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도 대학에서는 플라즈마열처리실험장치와 초음판단층촬영장치를 비롯한 7개의 첨단실험실습설비를 포함한 수십개의 실험실습설비들을 제작 및 현대화하여 교수활동에 적극 구현하였다.

이미 이곳 교육자들은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교수의 질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체험하였다.

대학에서는 매 학부, 학과, 연구소들에 분산되여있던 많은 실험실습실들을 통합정리하여 지난해 실험실습과 과학연구, 첨단제품개발을 할수 있는 대학적인 종합실험실습교사를 새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지난 시기 대학에서는 강의에서 배운 지식의 원리, 법칙을 론증하는 실험실습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충분히 계발시킬수 없었다. 창조적능력을 갖춘 기계기술인재들을 키워내야 하는 대학에 있어서 실험실습설비의 현대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았지만 대학일군들은 많은 품을 들여가며 실험실습설비현대화를 위한 전투를 다그쳐 끝낸데 이어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대학의 실험실습은 새로운 형태와 방법으로 진행되였는데 그 효과가 대단하였다. 학생들의 실험실습이 과학연구, 생산과 밀접히 결합되면서 창조적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

또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교원들의 과학연구사업에도 인입시키고 첨단제품생산에도 참가시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생산실습도 생산현장에 나가지 않고 대학안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종합실험실습교사에서 제한없이 마음먹은대로 할수 있어 이모저모로 좋았다. 이 과정은 그대로 학생들의 높은 실력으로 이어졌다.

대학에서는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단계의 작전으로 넘어갔다.

실례로 대학에서 70일전투기간에 학생들이 실험실습실에서 콤퓨터망을 통하여 설비들을 동작시키면서 편리하게 실험실습을 진행할수 있는 정보화를 실현한것을 들수 있다. 뿐만아니라 생산에도 리용할수 있는 첨단실험실습설비들을 끊임없이 개발도입해나감으로써 학생들의 안목을 넓혀주고 세계적인 우리의것을 더 빨리, 더 많이 창조해낼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키워주고있다.

지금 대학에서는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여 학생들을 5차원설계까지 할수 있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실천형의 인재들로 키워낼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갖추고있다.

이렇게 실험실습설비의 현대화에 큰 힘을 넣어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이곳 대학의 경험은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모든 교육일군들이 이들처럼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인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교육사업을 혁신적으로, 창조적으로 이끌고나갈 때 비약적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교육방법개선을 위해 어디에 힘을 넣었는가

신의주시 관문초급중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험은 중요한 교수형태이며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신의주시 관문초급중학교사업에서 특징적인것은 일군들이 시험방법개선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이다.

몇해전 교장으로 배치되여온 리영희동무는 학교사업을 료해하는 과정에 스쳐보낼수 없는 사실앞에서 생각이 깊어졌다. 시험준비를 하는 일부 학생들이 배운 내용들을 암기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던것이다.

교수내용을 원리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창조적응용능력을 높여나가야 할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외워바치는 방법으로 시험을 대하고있으니 과연 머리속에 얼마만 한 산지식이 남겠는가.

결국 이것은 교원들이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하지 못하고 낡은 교수방법에 매여달리고 있다는 생동한 실례이기도 하였다.

시급히 경종을 울려야 했다.

하여 얼마후에 시험을 치면서 문제들을 새롭게 만들어 제출하였다.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 특히 교재내용과 련관된 현실접부문제들이 제시되여 배운 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활용할줄 아는 능력이 없는 학생은 응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더 큰 자극을 받은것은 교원들이였다. 자기들의 교수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적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교원모임에서 교장은 앞으로 시험방법을 더욱 개선해나간다는것과 그에 맞게 교원들이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깨우쳐주는 교수를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두가 자질향상을 위해 전투를 벌렸다. 교원들은 수업을 학생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짜고들면서 교수밀도를 최대한 높이였으며 다기능화된 교실이 꾸려진데 맞게 현대적인 교육수단들도 능란하게 활용해나갔다.

시험방법이 개선되고 교수방법이 달라지자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우는 새 지식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인식하기 위해 정열적으로 달라붙었다.

학교일군들은 학생들을 보다 분발시키기 위하여 시험방법을 계속 개선해나가고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바쳐가며 교과서내용에 기초하여 현실과 결부된 시험문제들을 더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 적용하고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시험때마다 자기의 창조적응용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며 현실에서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다져나가고있다.

결과 몇달전 학교에서는 도안의 제1중학교들을 비롯한 상급학교에 수십명의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의 경험은 당의 교육정책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시험방법을 혁신하는데 큰 힘을 넣을 때 교육사업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인재후비양성을 위한 지름길

만경대구역 광명고급중학교에서

중등일반교육기간에 학생들을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지닌 나라의 쓸모있는 인재로 키울데 대한 당 제7차대회결정은 학생들에게 현실에 보다 가깝게 접근한 산지식을 더 많이 가르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받들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의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을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후비들로 키워가고있는 만경대구역 광명고급중학교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사업경험이 주목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강의나 책에서 배운 리론은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그 진리성을 검증할수 있고 자기의것으로 확고히 만들수 있습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있는 광명고급중학교에는 남다른 자랑이 있다. 많은 학생들을 궁전의 여러 과외소조들에 망라시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도록 함으로써 올해에만도 130여명의 졸업생들을 각급 대학들에 입학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것이다.

이것은 물론 높은 수준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춘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받는 훌륭한 과외교육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하지만 성과의 밑바탕에는 학교일군들과 교육자들의 숨은 노력도 진하게 깔려있다.

교장 백신국, 부교장 최명실동무를 비롯한 학교일군들이 사업에서 제일 중시하는것은 모든 교원들이 궁전지도교원들과 항시적으로 련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교원들이 다음날수업을 준비할 때에는 궁전지도교원들로부터 학생들의 인식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쥐고 그에 기초하여 수업하도록 하며 수업이 끝난 후에도 배운 내용에 대한 인식정형에 대해 궁전지도교원들에게 알려주는것을 정상화하도록 한것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하다면 그들은 왜서 궁전과의 련계를 그토록 중시하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기 위해서이다. 궁전과외소조에서는 한가지 과목에 한하여 실험실습교육을 거의 매일같이 한다고 할수 있다. 궁전과외소조교육이 학생들의 응용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실천실기교육에로 지향되는것만큼 학생들은 그곳에서 그날 배운 내용을 현실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으로 다져나가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좋은 과외소조교육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면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 한 신입교원이 얻은 교훈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몇해전 학교에는 우수한 대학졸업생이 교원으로 배치되여왔다. 전공과목은 물론 련관과목들에 대하여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전도가 기대되는 교원이였다. 그런데 몇달후 그가 맡은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예상외로 그전 학기에 비해 낮아졌다.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과의 배합작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즉 학생들이 궁전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거기에 근거하여 새 지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방법을 활용해야 하겠는가, 또 학생들이 리해하기 힘들어하는 내용들을 궁전과외소조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리해시키고 받아들이도록 하겠는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던것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 궁전과의 련계를 교원들에게만 방임해두었던 학교일군들의 사업에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되였다.

그때부터 학교일군들은 궁전과외소조교육과 학교교육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키는것을 인재후비양성을 위한 중요한 지름길로 여기고 이것을 학교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내밀었다. 그렇게 되니 학생들의 모든 사고가 자연히 한선으로 이어져 과학적원리에 대한 표상이 더욱 명백하게 세워지게 되였으며 결국은 하나를 배워도 자기의것으로 공고하게 다져나갈수 있게 되였다.

학교일군들의 관점과 일본새는 실험실습실들을 높은 수준에서 멋들어지게 꾸린것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학교에서는 70일전투기간에 물리실험실을 비롯한 여러 실험실습실들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처럼 최상의 경지에서 꾸려놓을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한 사업을 단 한달도 안되는 짧은 시일안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다.

쉬운 일은 아니였다. 하지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움터나게 하고 세계를 딛고 올라서겠다는 꿈을 키울수 있도록 내부장식도 새롭고 특색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백신국동무를 비롯한 학교일군들에게 학교실험실습실도 그처럼 높은 수준에서 꾸릴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게 하였다.

당 제7차대회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는데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음으로써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빛내이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는 이런 참된 교육자들이 많기에 사회주의 문명강국건설을 위한 내 조국의 전진속도는 나날이 빨라지고있는것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한경철

조선민족의 자랑—금속활자 새로 발굴

최근 개성 만월대에서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민족의 자랑인 금속활자 4점이 새로 발굴되였다.

이번에 발굴된 금속활자들은 《물흐르는 모양 칙》, 《지게미 조》, 《이름 명》, 《눈밝을 명》자로서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고고학학회, 민족고전학학회 련합회의에서 고려시기인 12-13세기에 주조되여 사용되였다는것이 고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유적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재부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고려시기의 12세기초에 인류문화발전에서 획기적사변의 하나로 되는 금속활자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명하고 사용함으로써 세계출판인쇄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조선민족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였다.

세계적으로 볼 때 1423년에 네데를란드에서, 1450년에 도이췰란드에서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사용하였다고 전해지고있는데 고려에서의 금속활자의 발명은 그보다 근 300년이나 앞선것으로 된다.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며 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해낼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에 의하여 외래침략자들의 파괴략탈행위로 땅미앞아 력사의 이끼속에 사라졌던 고려의 금속활자가 발굴되여 후세에 전해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가치있는 력사유적유물들에 대한 조사발굴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고려의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에서 주체45(1956)년에 한점의 금속활자를 발견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또 하나의 금속활자를 발굴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학술연구집단은 지난 3월 중순부터 만월대 서부건축군에 대한 조사발굴사업에 달라붙었다.

충정의 70일전투기간 전례없는 연구성과로 당 제7차대회를 빛내일 불같은 일념안고 발굴전투에 떨쳐나선 연구성원들과 유적발굴대원들은 서부건축군 남쪽부분에 대한 력사기록자료연구와 지난 시기 진행된 시굴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세밀히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이미 발굴한 2점의 금속활자의 출토위치가 거의 일치하다는것을 밝히였다.

수십일동안 200여㎡의 발굴면적에 대한 세추기 등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조사과정에 새로 찾아낸 4점의 금속활자들의 성분을 김일성종합대학 분석연구소에서 분석한데 의하면 그 재질이 모두 청동이라는것이 밝혀졌다.

그중 3점의 금속활자는 이미 발견된 금속활자들과 마찬가지로 크기가 가로 12~13㎜, 세로 10~11㎜, 높이 6~7㎜인 직6면체모양이며 앞면에는 글자가 돋혀있고 뒤면에는 구슬 또는 반구모양의 홈이 있다.

《눈밝을 명》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금속활자들보다 작은 활자로서 가로, 세로의 크기가 각각 7㎜, 6㎜이다.

새로운 금속활자의 발굴은 우리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끊임없는 과학탐구와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온 학술연구집단의 뜨거운 애국적열정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로서 력사학연구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선중앙력사박물관 학술연구집단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금속활자들을 같은 장소에서 단번에 발굴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명실공히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발명국이라는것을 보여주는 물적자료들이 더욱 풍부해지게 되였다.

금속활자발굴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총공격, 총매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더욱 불타게 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고려금속활자와 그 문화사적의의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진행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고려금속활자와 그 문화사적의의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가 1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과학, 교육, 민족유산보호,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강사, 기자, 편집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개성 만월대에서 금속활자를 발굴한 정형에 대하여》,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금속활자의 주조시기에 대하여》, 《13세기는 고려에서 금속활자 사용의 전성기》,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고려금속활자의 문화사적의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국장 로철수, 사회과학원 소장 박사 부교수 송현원,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 오희복, 사회과학원 연구사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습니다.》

토론자들은 먼저 지난 4월 고려왕궁터인 개성 만월대에서 4점의 금속활자를 발굴한 경위에 대하여 해설하고 활자들의 생김새와 크기, 재질 그리고 만월대에 약 700년동안 다른 건축물들이 세워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여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새로 발굴된 활자들은 고려시기의 금속활자이라는데 대하여 론증하였다.

그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고려시기 금속활자들을 발굴함으로써 고려사람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출판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우리 나라의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쳤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가르치심의 정당성을 실물로 확증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민족유산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금속활자의 형태와 종류, 재질, 서체, 주조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보다 폭넓게 진행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고려가 명실공히 금속활자의 첫 발명국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립증해주는 금속활자들은 세계문명발전에 기여한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민족의 재보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새로 발굴된 금속활자들의 출토지가 명백하고 서체상특징으로 보아 그 주조시기가 12세기 전반기부터 13세기 전반기로서 바로 이 시기가 고려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금속활자의 주조를 진행하던 시기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인류문화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고려의 금속활자사용이 13세기에 이르러 더욱 활발히 진행된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론증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 목판인쇄와 나무활자를 리용하여 활판인쇄를 진행한 경험에 토대하여 12세기초에는 글자를 새긴 금속화폐가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금속활자를 발명할수 있는 제반 조건이 성숙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동국리상국집》,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비롯한 력사자료들은 고려의 출판인쇄기술이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금속활자의 사용은 13세기에 전성기를 이루고있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새로 발굴된 금속활자들은 커다란 문화사적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우리 민족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만들어냄으로써 세계인쇄기술발전에 큰 기여를 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민이며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긍지롭고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일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민족유산발굴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더욱 꽃피우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훈창조의 불씨가 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봉사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봉사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해주시에 가면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해주옥계각의 봉사자들이다.

새해전투의 첫날에는 시안의 전쟁로병들에 대한 초청봉사로, 70일전투의 첫날에는 군인가족들에 대한 초청봉사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곳 봉사자들의 소행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준다.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접했을 때 리성애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생각은 한곬으로 흘렀다.

70일전투의 철야진군속에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줄기찬 투쟁을 벌리는 시안의 전투원들에게 잠시라도 기쁨을 주고 조금이라도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싶은것이 그들모두의 심정이였다.

이렇게 되여 그들이 만든 초청장은 매일과 같이 70일전투장들에 전해졌다.

누구나 그 초청장을 받고 기쁨에 겨워 식당으로 들어섰지만 친절한 봉사원들의 손에 이끌려 성의껏 차린 식탁을 마주하고는 모두가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나하나의 음식들과 집기류마다에 어머니당의 은정깊은 사랑이 따뜻이 어려와 누구나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다.

손님들모두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혜택속에 사회주의 우리 제도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젖어든다고, 70일전투의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겠다고 너도나도 이야기할 때마다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슴뿌듯이 느끼군 한 옥계각의 봉사자들이였다.

초청봉사, 이동봉사, 주문송달봉사…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자기들이 하는 고생이 클수록 인민들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그만큼 더욱 커진다는 숭고한 자각은 그 어떤 어려움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는 힘의 원천이였다.

종업원의 대다수가 녀성들이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일터를 변모시키고 음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모르는 고생도 달게 여겼다.

한번 오면 또 오고싶은 정다운 집.

바로 이런 소중한 부름과 더불어 시안의 전투장마다에서는 날마다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이곳 봉사자들의 헌신의 자욱은 그대로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전투원들의 심장마다에 영예로운 승리자로서의 자각과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혁신의 불씨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력사적업적

인류자주위업은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섰다. 진보적인류는 조선로동당을 우러르며 우리 당의 혁명투쟁사에서 나아갈 길을 찾고있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우리 당은 세계자주화흐름의 중심에 확고히 서있으며 그를 주도하고있다.

오늘의 모든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 공화국이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의 보루, 반제자주의 성새,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총결기간 우리가 대외관계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도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당의 자주적대외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시였으며 탁월한 외교지략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과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전투적기치를 안겨주시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과 세계평화위업실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조선혁명과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위하여 모든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이 세상 어느 위인과도 대비할수 없는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80년대와 90년대, 21세기의 첫 10년대는 우리 당에 있어서 참으로 준엄한 시기였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받들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적인 반사회주의, 반혁명의 역풍속에서 단신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무너지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졌으며 이를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는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에 집중되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세력들은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악랄한 책동에 매여달렸다.

세계가 우리의 운명, 인류자주위업의 운명을 놓고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력사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선군혁명령도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자주위업을 수호하신 절세의 위인들이시다.

제국주의는 자주를 지향하는 인류의 원쑤이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지구상에서는 흉포성이 절대로 멎을수 없다. 자주화된 새 세계는 오직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무장한 적과는 무장으로 맞서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오시였다. 평화는 구걸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는 사상, 제국주의자들에게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말아야 하며 평화를 바라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들은 오늘도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그 정당성은 지난 세기 90년대와 현 세기에 들어와 톡톡히 확증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으로 되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을 때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단연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핵위협공갈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던 21세기 첫 10년대에 장쾌한 첫 핵폭음으로 온 세계를 들었다놓으시고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다. 우리 공화국은 인류자주위업을 주도해나가는 불패의 보루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오늘도 세계는 《사회주의조선이 없었다면 지구상에서 진정한 평화는 영원히 사라졌을것이다.》, 《미국을 쥐락펴락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조선의 선군정치야말로 가장 리상적인 정치이다.》라고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이것은 인류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강력한 혁명의 총대로 그 실현을 위한 활로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있던 시련의 시기에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을 리론실천적으로 확증하시고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전진을 추동하신 탁월한 령도자들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던 지난 세기말엽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좌절의 원인과 교훈, 사회주의의 승리의 필연성을 사상리론적으로 명확히 론증하시여 원쑤들의 궤변에 철퇴를 가하시고 진보적인류에게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심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0년대초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에꽈도르좌익민주당대표단, 스웨리예공산주의자로동당 위원장,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대표단, 벨지끄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 대표단들과 당수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과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경험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서 사회주의의 불패성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가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된다는 철리로 사회주의를 헐뜯던 원쑤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시였다.

자주위업은 민족적위업인 동시에 인류공동의 위업이며 매개 나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이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의 단결을 요구한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세력이 련합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을 가로막고 로골적으로 도전해나서고있는 조건에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이 단결하여 그에 맞서는것은 필수적이다.

혁명적당들과의 국제주의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맡겨진 민족적임무와 함께 국제주의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를 우리 시대 모든 인민들이 들고나가야 할 공동의 투쟁구호로 제시하시고 혁명적당들부터 국제주의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로고에 의하여 주체81(1992)년에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평양선언이 채택되였으며 이것은 세계 혁명적당들의 투쟁강령으로 되였다.

평양선언의 채택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은 타격을 받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재건을 위한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위업을 선도해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존엄을 떨치게 되였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은 조선식사회주의만이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주는 사회주의라고 한결같이 칭찬하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경험을 따라배우는것이 하나의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인류자주위업은 자기의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수령님들의 사회주의건설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수령님들께서 인류자주위업에 쌓으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준엄한 환경과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원칙적이며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류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여러 나라들에서 《개혁》, 《개편》바람이 일고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광풍이 어지럽게 불어치던 속에서도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당의 자주적대외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시였다. 당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의 구호밑에 모든 문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모든 대외정책을 우리 인민의 리익과 혁명의 요구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왔다.

우리 공화국이 총결기간 66개 나라와 새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많은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한것과 자본주의나라들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문화적교류와 협조가 확대발전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뉴대와 련대성이 강화된것은 우리 수령님들의 대외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우리 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은 우리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에 의하여 발전하고 그 위대한 발자욱을 따라 전진하여왔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오늘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탁월한 령도자,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기수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세계도처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따라배우고 자기들의 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얼마나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는가를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계시였기에 지난 기간은 자주의 시대로 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길수 있었으며 인류자주위업은 력사의 온갖 도전과 정치풍파를 이겨내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기여를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오늘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현 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풍모와 탁월한 령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는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은 인류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리 학 남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최대의 신뢰의 표시

여러 나라 정부 성, 정당, 단체대표단과 각계 인사들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9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정부 성, 정당, 단체대표단과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꾸바혁명무력성, 캄보쟈크메르민주당, 캄보쟈왕국군축구협회, 캄보쟈태권도협회대표단과 민주꽁고로동당 총비서, 민주꽁고공산당 총비서,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자티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꾸바 제인민간의 친선협회 부위원장,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 도이췰란드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꾸바혁명투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최근 꾸바와 조선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된 당대회들은 반제자주위업을 위한 두 나라, 두 당의 승리적전진을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하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에 접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환희에 넘친 모습을 출판보도물을 통해 보면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민주꽁고공산당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로동당뿐아니라 민주꽁고공산당을 비롯한 전세계 진보적정당들에 있어서 커다란 행운으로 된다.

거의 모든 서방언론들까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식을 매일 광범히 보도하는것을 보면서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는 김정은동지의 세계적인 명성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당 제7차대회를 통하여 조선로동당은 불패의 위력을 만방에 다시금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는 한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것이며 전세계피압박인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 정의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한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김일성김정일기금 공동리사장,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이딸리아국제대외교류재정그룹 리사회 리사장, 중국 홍콩 중화에네르기기금위원회 비서장, 엠페러그룹 회장, 금려관광사업유한공사 총사장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 축 모 임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북유럽진보정당 및 친선단체 대표들의 련합경축모임이 14일 스웨리예 스톡홀름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이 모임장소정면에 모셔져있었다. 모임장소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모임에는 스웨리예, 핀란드, 단마르크 등 북유럽나라들의 정당,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과 성원들 그리고 스웨리예주재 우리 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스웨리예의 공산당 위원장 로베르트 마리아쏜,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국제비서인 주체사상연구핀란드전국위원회 위원장 울하 끼에씨,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련합경축모임을 가지게 되는 기쁨을 피력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며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전투적인 련대성과 지지를 보낸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축하하는 성명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경제발전노력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경제개발지대건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14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부지면적이 1 149ha에 달하는 이 지대에서 에네르기 및 화학공업, 농산물가공, 기계제작, 전재생산 등 부문의 기업체들이 가동하게 된다. 현재 이 지대의 하부구조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경제개발지대는 나라의 경제발전목표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산림조성사업

네팔에서 생태환경개선을 위한 산림조성에 큰 힘을 넣고있다. 정부에서 나무심기 등 산림조성을 위한 사업을 잘한 결과 현재 전국적인 산림덮임률은 44.74%에 달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지열에네르기리용계획, 토지사막화방지노력

탄자니아정부가 11일 지열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나라에서는 앞으로 7년동안 지열에네르기를 리용하여 10만kW의 전력생산능력을 조성하게 된다. 정부는 지열자원탐사사업을 다그치며 그 리용률을 최대로 높일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자니아에서 최근 토지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나무심기캄빠니야를 벌리고있다. 2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캄빠니야과정에 총 150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령토의 60%이상이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있다 한다.

무역통로개설협조 강화

아르헨띠나, 브라질, 칠레, 빠라과이가 5일 무역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그루빠를 내오기로 합의하였다.

실무그루빠는 브라질의 남부대서양연안 항구로부터 칠레의 북부태평양연안 항구까지 남아메리카대륙을 횡단하는 무역통로를 개설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계획에 따라 약 500km에 달하는 도로포장, 다리건설 등 공사들을 추진하게 되며 무역통로는 2018년에 운영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전력문제해결노력

베닌정부가 7일 부족되는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2018년까지 나라의 전력생산능력을 35만 2 000kW로 높이게 된다. 이를 위해 전력의 도중손실을 막고 그 효률을 최대로 높이며 화력발전소들을 새로 일떠세우는 사업들이 진행되게 된다.

석유화학공장 건설

이란에서 석유화학공장이 건설되여 3일 준공되였다.

로레스탄주에 건설된 이 공장은 부지면적이 130ha에 달하며 년간 30만t의 고농도폴리에틸렌과 3만t의 부탄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심각한 피난민문제

이라크에서 끊임없는 무장분쟁과 충돌로 피난민이 계속 생겨나고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에서 3월부터 현재까지 약 8만명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로 바다물면 상승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집단이 최근 지구온난화로 바다물면이 상승하면서 태평양의 솔로몬제도가 물에 잠기고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몇년동안 바다물면이 계속 상승하여 솔로몬제도에 속해있던 5개 섬이 물에 잠기고 해안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여

세계 주요도시들의 심각한 대기오염문제

세계보건기구가 12일 주요도시들의 대기환경오염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103개 나라의 3 000여개 도시들의 PM2.5와 PM10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주요도시 인구의 80%가 심각한 대기오염속에서 살고있다 한다. 기구는 한심한 대기환경이 폐암과 호흡기계통질병의 발생위험성을 높일수 있으므로 대책을 강화할것을 각국에 호소하였다.

미국에서

미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최근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당국의 에네르기정책을 반대하여 대중적인 시위들이 벌어졌다. 시애틀, 로스안젤스 등 도시들에서 14일부터 시작된 시위들에는 기후변화활동가들을 비롯한 수많은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대기오염의 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취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일본에서

일본 오끼나와현의 나하시에서 15일 미군기지철폐를 요구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1 000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등의 글들이 씌여진 구호판들과 프랑카드들을 들고 시내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미군기지를 헤노꼬연안지역으로 이설하려는 일미당국의 불순한 계획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현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에스빠냐에서

에스빠냐의 마드리드에서 15일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을 반대하여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3 000여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거리들을 행진해가면서 당국의 반인민적인 긴축조치들과 사회적불평등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뽈스까에서

뽈스까의 제쉬꼬브와 그 주변지역에서 13일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배비를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은 《우리는 화약통우에 올라앉고싶지 않다.》 등의 글들이 씌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미군기지건설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배비는 지역의 안전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를 신랄히 규탄배격하였다.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빠리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12일 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시위들에는 수많은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거리들에 떨쳐나와 자기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당국의 로동법개정책동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시위들로 교통이 혼란에 빠졌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그리스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대미추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는 유럽

피난민위기로 버그러졌던 오스트리아와 그리스의 관계가 회복되였다. 얼마전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두 나라 외무상급회담이 있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외교관계를 정상화할데 대한 합의를 이룩하였다.

지난 2월 오스트리아는 피난민위기해결과 관련하여 주최한 발칸반도나라들의 회의에 그리스를 초청하지 않았다. 리유는 그리스가 피난민류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유럽이 피난민위기에 빠져들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중동지역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찾아가는 피난민들이 제일먼저 도착하게 되는 곳이 이딸리아와 그리스라고 한다. 특히 심각한 경제위기로 하여 사회적혼란속에 빠져든 그리스로 피난민들이 더 많이 밀려들고있다. 그리스-마께도니아-쎄르비아-마쟈르는 피난민들이 서유럽나라들로 가는 기본통로로 되고있다.

피난민들이 들어오는데 급해맞은 발칸반도나라들과 서유럽나라들은 피난민류입통제를 강화하라고 그리스에 압력을 가해나섰다. 오스트리아가 피난민위기해결과 관련한 발칸반도나라들의 회의에 그리스를 초청하지 않은것도 그러한 압력의 일환인것이였다.

그리스는 그 회의에 자기 나라를 초청하지 않은것은 비우호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오스트리아주재 자국대사를 소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하여 두 나라간의 외교관계는 버그러졌다. 맹맹한 분위기를 가시기 위해 오스트리아가 이번 회담을 마련하였던것이다.

분석가들은 현재 오스트리아-그리스관계가 정상화되였다고는 하지만 피난민위기가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또다시 우여곡절을 겪는것은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 사실은 피난민문제해결에서 서로 제 주장만 고집하면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유럽나라들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고있다.

《다양성에 기초한 통일》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유럽동맹이 창설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날로 첨예화되는 피난민문제로 하여 유럽나라들사이의 외교적마찰은 다분히 나타나고있으며 유럽의 전망에는 어두운 그늘만이 짙어가고있다.

국경검열을 받지 않고 사증없이 지역내를 래왕할수 있도록 한 쉔겐협정의 리행문제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지난해부터 일부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국경관리통제문제를 놓고 유럽동맹과 론쟁을 거듭하여왔다. 합의를 볼수 없게 되자 도이췰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리예, 마쟈르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은 쉔겐협정의 리행을 중지하고 독자적인 대응책을 취하였다. 국경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지어 국경을 페쇄하는 방법으로라도 피난민사태를 방지하겠다는것이다.

유럽동맹의 앞길에 난관이 조성되자 유럽동맹위원회는 《쉔겐체제회복로정도》를 제기하고 올해중으로 국경들에 설치한 모든 검열기구를 해체하며 정상적인 자유류동을 회복할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에 불복하는 성원국들이 늘어나고있다. 그로하여 유럽의 통합을 안받침해주고있는 쉔겐협정은 날이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있다.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이 유럽동맹이 금융위기에 이어 전례없는 피난민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유럽통합의 꿈이 깨여져나가고있는것을 시시각각 느끼고있다고 개탄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유럽동맹이 피난민위기라는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대는것은 그 누구를 탓할것도 못된다. 자기자신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 유럽나라들은 《민주주의정권을 세운다.》는 미명하에 감행된 중동지역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간섭에 적극 추종해왔다. 유럽나라들의 대미추종질과 중동지역은 테로와 보복의 란무장으로 변하였으며 이를 피하려는 지역주민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유럽으로 거침없이 밀려드는 피난민사태가 산생되였다.

가관은 유럽나라들을 피난민위기에 몰아넣은 미국이 뻔뻔스럽게도 피난민문제처리를 놓고 유럽을 비난하면서 그 처리를 바로하라고 삿대질을 해대고있는것이다.

세계여론들은 한결같이 지금 유럽나라들이 미국에 적극 추종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다고 하면서 대미추종정책을 심각히 반성해볼 때가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유럽나라들의 이 비극적인 실태는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멸행위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유럽나라들은 세계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림 원

폭우피해

방글라데슈에서 12일 폭우가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전국적으로 30여명이 목숨을 잃고 15개 지역에서 수백칸의 살림방이 무너졌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큰물피해

인도네시아의 남부깔리만딴주에서 최근 큰물피해를 입고있다.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로 12일현재 3명의 사망자와 1명의 행방불명자가 났으며 1 000명이 피해를 입고 약 200채의 살림집이 파손되였다. 11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바다크샨주에서도 큰물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수십채의 살림집과 많은 농경지가 파괴되였다고 한다.

피해지역들에서 긴급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홍역으로 인명피해

몽골에서 최근 홍역이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6일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만 9 194명의 환자가 등록되고 59명의 갓난애기들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가 심한 지역들의 유치원과 소학교들의 수업을 림시 중단시키고 왁찐접종을 실시하는 등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61082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